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우면 마음 상할 일이 없어

천당에서의 생활

‘생명수 가에 화초는 늘 사시정준’이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죠? 여기에 화초는 뭘 말하느냐 하면 구원 얻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 얻는 사람들은 꽃보다도 몇 백배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이 백 살이 되면 이도 새로 나고 머리카락도 새로 나고, 살도 새 살이 돌아서 어린아이 같게처럼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그러한데 영생 얻은 사람은 말할 게 있겠어요? 영생 얻은 사람들은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화초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생명수 가에 화초라고 한 것은 영생 얻은 사람들에게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을 화초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날에 영생 얻은 사람들은 누구를 봐도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그날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것만 눈에 띄는 고로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워서 영생을 아니 하려야 아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조건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의 얼굴 대하리’ 하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천당이라고 하는 곳은 다이아몬드와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인 고로 그 황금보석 꾸민 집에서는 좌측을 봐도 구세주요, 우측을 봐도 구세주요, 앞을 봐도 구세주요, 어디를 봐도 구세주만 보이시 옛날에 살던 세상 사람들은 한 명도 눈에 띄질 않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든 사람 속에 구세주의 분신이 들어가서 주체영이 되는 고로 얼굴이 모두 구세주의 얼굴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가서는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예쁘고,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고로 거기에는 슬픔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항상 기쁨과 즐

거움과 쾌락뿐이니 말로 할 수 없이 즐거운 세상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를 천당이라고 하고, 극락세계라고 하며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식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육천년 전에 잃어버린 에덴동산이 회복될 때에는 보이는 것마다 말로 할 수 없이 아름다운 고로 항상 웃게 될까요, 화를 내게 될까요? 항상 웃게 되죠? 이쪽을 봐도 아름답고 저쪽을 봐도 아름답고, 아름다운 것뿐인 고로 마음이 항상 상쾌하고 기쁘고, 쾌락의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고로 영원무궁토록 안 살려야 안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데 마음 상할 일이 있을까요? 마음 상할 일이 없으니까 피가 썩을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천당에서 사는, 영생의 조건 속에 사는 환경으로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실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실체가 사람 몸을 입고 오면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고도 사람 몸을 입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은 당신 자식을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는 고로, 당신 자식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다 무릅쓰고 그것을 감수하리라는 각오 하에서 사람 몸을 입었겠죠?

사람 몸을 입은 것도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럽지만 이제그대로 이긴자 구세주가 되기 위한 연단의 과정을 밟을 때 역시 인간으로서는 그러한 고통을 당한 사람이 없다 할 정도의 무서운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서 다 알고 있죠? 평생을 고



구세주 조희성님

난 속에서 살았으며, 평생 죽음의 고비 고비를 넘어가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구세주가 나오면 마귀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아는 고로 구세주를 틈만 있으면 죽이려고 했으나 가위놀려서 다 죽어갈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온 세상 인류를 살려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집념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은 살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총살을 당했으나 살아남아

이 사람 나이 스무 살 때에 625전쟁을 일으킨 것도 역시 마귀가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일으켰다고 하는 것을 여러

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것을 미리 알아차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저렇게 보호해주셨던 것입니다. 인민군들이 낙동강까지 밀고 내려왔을 때에 남한은 인민공화국 천지가 되어버렸고, 그때 이 사람이 불들려서 평양 신양리 형무소까지 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나오라고 하더니 트럭을 타라고 해서 탔더니 평양 서포 뒷동산으로 데리고 가서는 약 오백 명 되는 사람들을 여섯 명씩 꾸미를 찌가지고 총을 쏘서 죽이는데 이 사람이 맨 마지막에 총살집행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에 총살집행당하게끔 하나님이 조종을 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총살집행당할 때에는 이미 5백여 명을 쏘서 죽인 후인 고로 총열이 뜨거워져서 휘어지니까 총알이 곧바로 나갈까요, 빼뚫어 나갈까요? 빼뚫어 나가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총을 쏘았으나 에리예 두 방이 맞았고, 총을 두 방 쏘는 순간 이 사람은 기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 거리가 30미터인지 50미터인지 지극히 가까운 거리에서 왔는데도 이 사람 에리(웃김)에 맞고 몸에는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이 사람을 인민군들이 시체 구덩이에 던져놓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구덩이가 딱 차서 땅 위로 시체들이 올라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던졌을 때에 이 사람이 정신이 깨어났으면 죽었을까, 살았을까? 죽었죠?

몇 시간 후에 정신이 차려져서 내가 죽었나, 살았나? 하고 넓적다리를 꼬집어보니까 아픈 고로 ‘야, 내가 살았구나!’하고 거기서 기어 나오려고 하니까 시체 두 구가 위에 눌러 있는 고로 한참을 급매대기 치고 몸을 돌려서 기어나와서는 이 사람이 서포 뒷동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먼 데를 보았는데 그곳이 북쪽이었던 것입니다. 북쪽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불빛이 환하게 비쳐오는 고로 이 사람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불빛 있는 대로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하니까 막 은혜가 연결되었던 것입니다. 은혜가 연결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는 고로 이 사람이 그 불빛을 향해서 갔는데 거기가 바로 대동군 부산면 용곡리였던 것입니다.

다시 포로가 되기까지의 과정

불빛 있는 곳으로 가보니까 어떤 처녀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그 부엌의 전기 불빛이 나한테 비쳐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엌에 들어볼

고 들어가서 ‘사람 좀 살려 달라’고 하니까 그 처녀가 깜짝 놀라면서 어디서 오셨느냐고 묻는 고로 나는 서울 대학생인데 교회 목사님이 파난가고 없어 이 사람이 예배인도를 하게 되었는데, 인민군에게 잡혀 신양리 형무소까지 끌려와서 한 달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총살집행을 당했으나 혼자 살아서 불빛을 따라 이곳에 오게 되었다.’고 하니 아가씨가 이 사람을 굴속에 숨겨 주고는 매일 저녁 열두 시마다 뽕포(도시락) 두 개씩 넣어 줘서 그것을 먹고 이 사람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굴속에서 한 달 정도 지난 후에 야군이 인천상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서울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평양까지 입성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북의 방공청년들은 생명을 걸고 투쟁하는 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는데, 그 방공청년들이 이 사람한테 찾아와서 ‘동지, 동지’하고 부르면서 나오라고 하는 고로 나가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야군이 평양까지 점령해가지고 곧 여기까지 올 터인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않으나, 우리가 치안대를 조직하여 패잔병 인민군들을 전부 잡아서 포로수용소로 넘기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러려면 치안대장이 있어야 되니까 치안대장을 당신이 하시오!” 하길래 “나는 아직 나이도 스무 살이고 학생이기 때문에 치안대장을 할 만한 자격이 안 되니 여기 나이 많으신 분이 치안대장을 하십시오.”하고 말했더니, 막 안 된다고 펄쩍 뛰면서 “당신만한 애국자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인민군한테 총살까지 당한 애국자인데 이런 애국자가 치안대장을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고 하면서 나이는 상관없다고 하

하단에 계속

정신이 몽롱하고 힘이 없던 사람이 사과를 먹고 생기가 돌고 기운이 나다

면서 이 사람더러 치안대장을 하라고 하는 고로 이 사람이 하는 수 없이 치안대장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치안대장을 하면서 인민군들을 잡으면 계급 높은 별자리들도 잡혀오게 되는데 치안 대원이 권총으로 골통을 쏘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안대원들을 모아놓고 “우리민족은 36년간 일본 놈들한테 식민지생활을 하면서 억울하게 핍박을 당하다가 해방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동족상잔을 일으킨다면 민족적으로 치욕의 역사가 될 것이니, 동족을 죽이지는 맙시다. 빨갱이 사상에 물들었다하더라도 그들을 교육해서 그 사상을 벗겨주면 되는 것인데, 같은 단군 할아버지 자손끼리 죽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라고 막 읊면서 호소하니까 치안대원들이 거의 다 이 사람의 말에 동감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들었던 것입니다.

치안대장을 공산주의자로 신고

그래서 난 죽이지 않을 것을 100% 믿었는데 치안대원 가운데 아주 극성맞은 반공주의자들이 생각하기를, ‘우리 치안대장 사상이 이상하다. 치안대장이 어떻게 공산주의자를 죽이지 말라고 할 수가 있느냐,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공산당들한테 죽었는데 이 사

람들을 그대로 살려둘 수가 있겠느냐?’하면서 이 사람을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더니 며칠 후에 두 사람이 평양 미 헌병대까지 찾아가서 ‘우리 치안대장이 공산주의자니까 죽여 없애 달라’고 신고를 하니까 헌병 두 사람이 지프차를 타고 와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권총을 겨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치안 대장이었던 이 사람에게 쌍권총이 있었건 고로 권총을 양쪽 손에 들고 미군들을 향해 권총을 겨누면서 “너희들이 보다시피 내가 완장을 차고 있는 이 지역의 치안대장인데 공산주의자가 어떻게 치안대장을 하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모함하는 말만 듣고 공산주의자로 여기고 죽이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은 못 죽인다. 너희들이 총을 쏘면 나는 금세 죽지 않는 고로 너희들이 총을 쏘면 나도 총을 쏠 것이다”라고 말하니까 미군들이 권총을 허리에 도로 집어넣으면서 “그렇다면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대장한테 가자”고 하는 고로 지프차를 타고 평양 헌병대로 갔던 것입니다.

평양 헌병대장이라는 사람이 미군 대위인데 내가 말을 하려고 하니까 “Shut up(입 닥쳐)”, “Monkey house go ahead(형무소에 바로 집어넣어)”라고 소리 지르는 고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차에 실려가지고 형무소에 갔는데 거기가 바로 이 사람이 포로 생활했던



신양리 형무소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치안대장으로 있으면서 인민군 약 5천 명을 잡아서 넘겨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그 형무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니까 눈이 동그레져서는 ‘아니, 저 사람이 치안대장인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을까?’하고 궁금해 했지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을 아는 고로 그냥 잠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민군 포로들이 볼 때에는 이 사람을 반동분자라고 생각하겠죠? 반동분자로 보니까 무슨 트집이든 잡아가지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젠 사자 굴에 이

사람을 집어넣은 거나 한 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때리는 모습을 본 미군들이 때리지 못하게 말해서 이 사람이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매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비참한 포로 생활

형무소에 포로들이 많이 들어오는 고로 수용이 불가능하니까 넓은 평양 동양방직공장으로 옮겨 땅바닥에 가마떼기를 깔고 그 위에 포로들을 전부 앉혀놓고는 끼니때마다 밥 대신 밀을 삶아서 주는데 그걸 먹으니까 그만 항문이 막혔던 것입니다. 그래 며칠 동안 대변을 못 보게 되니까 얼굴이 노랗게



감로 이슬성신

곡선광선(이기신 하나님의 영)이 회오리바람처럼 이동하면서 사람의 몸을 투과하여 지나가게 되면 몸속의 혈액이 불멸불사의 피로 변한다.

되면서 어지럽고, 또 밤이면 배가 아파서 못 견디어 꿈중 앓고 있는데 국군 장교가 순찰하다가 그 소릴 듣고 “어디가 아프시냐?”고 물어보는 고로 상태를 얘기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다니던 비상약인 다이어장 세 알을 줘서 받아 먹었더니 변소 갈 사이도 없이 설사가 막 쏟아져 나오는 고로 옷이 똥으로 범벅이 되어 옷을 벗어야 되는데 그때가 11월이었으니까 추워지기 시작할 때인 거죠?

그런고로 발가벗은 상태에서 이 사람에게 나오는 똥똥 한 그릇을 먹지 않고 웃고하고 바퀴 입어야 추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설사로 대변을 본 것

은 좋았는데 그것이 그만 이질이 되어 가지고 아랫배가 무지무지하게 아픈고 대변을 보면 피 곱똥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질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중공군들이 압록강을 건너 이남을 향해 쳐들어오는 고로 포로들을 아래쪽으로 이송해야 된다고 해서 화물기차를 타고 인천수용소로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건강하니까 경충경충 뛰어서 내리는데 이 사람은 몸이 아파서 몸을 가눌 수 없는 처지였던 고로 높은 화물차 위에서 뛰어내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이 경충 뛰어내렸으나 바닥에 털벌 주저앉아 쓰러지는 고로 옆에 있던 포로들이 양쪽에서 부축해주었던 것입니다. 인천수용소를 향해 가는 길에 배고팠던 포로들이 기계에 늘어놓은 사과궤짝을 잃어버리니까 사과가 막 굴러 내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굴러 내려오는 사과 하나를 이 사람이 얼떨결에 집어서 바지 속에 감춰놨다가 인천수용소에 도착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정신이 몽롱하고 힘이 없던 사람이 생기가 돌고 기운이 나는 것을 보고 사과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과뿐만이 아니라 과일들은 다 좋은 것입니다.*

2001년 7월 4일 주님 말씀 중에서 정리 원헌욱 기자